

4분기 주담대 받기 더 까다로워진다

한국은행, 국내 은행 대출태도지수 '2'

주담대는 '-3'...전 분기(3)보다 까다로워

올해 4분기(10~12월)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사태 결과'를 보면 올해 4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2를 기록해 지난 3분기 16보다 14p(포인트) 낮아졌다. 국내 대출태도지수가 낮을수록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9·13 부동산대책 등 각종 규제 강화로 지난해 4분기 국내 은행

들의 종합 대출태도지수는 -18까지 내려갔다(심사 강화) 올해 1분기 9, 2분기 11, 3분기 16까지 오른 바 있다.

특히 4분기 가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지수 전망치는 -3으로 지난 3분기(3)보다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주담대지수는 지난해 4분기 -47를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3, 2분기 -7을 이어가다 3분기 3으로 완화된 바 있다.

4분기 가계 일반대출태도지수 전망치 역시 -3을 기록해 지난 3

분기(7)보다 엄격한 심사가 예고됐다. 가계 일반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33를 기록했다가 올해 1분기 -3, 2분기 0으로 완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대내외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와 2020년 신(新)예대출 규제 도입 등으로 소폭 강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 예대출 규제는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115%)과 기업대출(85%)간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이에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 대기업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3을 기록해 보다 엄격한 대출심사가 예상된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

기 연속 0을 기록했다. 지난 3분기 10으로 완화됐는데 다시 대출심사 강화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4분기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7로 대출 심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3을 기록한 이후 1분기 17, 2분기 23, 3분기 27로 완화된 심사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우량 중소기업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리스프레드가 줄어들거나 한도가 증액되는 등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4분기 국내 은행의 신용위험지수(종합) 전망치는 2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분기 22이보다 1p 오른 수치다. 신용위험지수 상승은 신용위험이 더 커졌음을 뜻한다.

대기업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13으로 지난 3분기 10보다 3p 상승했다. 중소기업은 30으로 지난 3분기 33보다 3p 내렸다.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지난 3분기 10에서 4분기 17로 7p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신용위험도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개선 제약 등의 영향을 받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는 10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는 0으로 중립인데, 중소기업 17, 가계일반 13, 가계주택 10 등으로 대출수요 증가할 것이라 답변이 많았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필요성과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가계 대출수요는 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담대와 일반대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제철맛은 뉴질랜드 아보카도 맛보세요"

1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농산 매장서 모델들이 뉴질랜드 아보카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뉴질랜드 아보카도를 개당 2,500원에 판매한다. 뉴질랜드 아보카도 시즌이 끝나는 12월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뉴스1

오비맥주, 소비진작 위해 카스 출고가 4.7% 내린다

2020년까지 유지...출고가 1203.22원→1147원

오비맥주는 국산맥주 소비진작을 위해 대표 브랜드 '카스'의 출고가를 2020년까지 4.7%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카스 병맥주 출고가(500ml)가 1203.22원에서 1147원으로 내려간다. 오비맥주는 국산맥주 판매활성

화와 소비촉진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내년 주세 체계가 증가세에서 종량제로 전환되면 맥주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국산맥주 증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가격인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뉴스1



"가성비 높은 와인에 홈술족 화답"

52시간제 시행, 워라벨 문화 확산으로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 트렌드가 확산하고 비교적 저렴하고 맛 좋은 '가성비' 와인이 늘어나면서 와인 수입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1억8980만달러(2252억원)였던 와인 수입액은 지난해 2억4400만달러(2894억원)로 29% 증가했다. 올해에도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액이 1억7218만달러(204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늘었다.

이는 국내 주류 출고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비교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

인 수입 증가율은 2016년 1%에 불과했으나 2017년 9.7%, 지난해 16.2%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와인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은 와인을 선별, 대량으로 수입하는 유통업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격이 비싸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는데도 성공하면서 와인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는 와인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성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 트렌드,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문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비에 큰돈을 쓰길 주저

홈술·워라벨 확산에 수입맥주 증가율 육박

대형마트, 가성비 와인 활용해 고객 유치

전체 출고량(수입분 제외)은 지난해 355만1000kl였다. 2016년 368만kl를 기록한 이래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닐슨코리아'가 올해 발표한 '국내 가구 주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구의 연간 주류 구매량은 2017년 대비 17% 상승했다. 결국 수입맥주와 와인을 즐기는 수요가 늘면서 구매량 자체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와인 수입 증가율은 맥주 수입 증가율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맥주 수입 증가율은 2016년 28%, 2017년 45%로 급증하다 지난해 17.7%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이에 비해 와

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와인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와인 판매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와인은 특별한 기분을 내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나 독한 술이 부담스러운 중장년층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며 "가격대를 낮추면서도 와인의 종류를 늘려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 소비자의 만족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1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